



유진 신부가 보내는 다름을 존중하는 열린사회를 향한 메시지

21세기의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힘은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화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나 집단들과의 무수한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현재 수십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일민족이라는 관념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같등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적·언어적·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노동자로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대략 지난 1991년부터 라고 한다. 낯선 타향 땅에서 온갖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무관심 했던 당시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필리핀 출신의 신부님이 있다. 현재 천주교 수원교구 외국인 노동자 사목센터 '갈릴래아'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진(43, Eugene Docoy) 신부. 그를 안산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한국에서 12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벼를 자칭한 그는 연세한국어학당에서 우리말을 배운지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다.

갈릴래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로 대화를 시작했다.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반 병원에 가면 보증금으로 2,300만 원을 내야 하고, 보증금이 없으면 진료비의 180%를 내야 합니다.”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고자 먼 이국 땅, 한국까지 온 그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몸이 재산인 그들이 아플라치면 그보다 더 난감한 일은 없을 터이다. “딱한 그들을 위하여 원곡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14명과 약사들이 매주 교대로 이 곳에 오셔서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의료공제회가 설립되어 공제회 카드를 가져가면 보증금 없이도 100%의 진료비만 내면 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노동 상담실 운영도 중요한 활동이라고 한다. 임금체불, 폭력, 퇴직금 미지급 등 부당한 사례가 생기면 유진 신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그들의 입이 되어준다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다고 갈릴래아에서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고루시아 씨가 귀뜸을 해 준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에 큰 관심

또한 종교활동도 활발하게 하여 미사, 피정, 기



각국의 춤과 노래를 함께 나누는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위)과 축구대회(아래)

도 모임, 성서 공부 등도 하고 있다. 각종 교육프로그램, 축구나 농구대회, 봄과 가을에는 나들이, 각 나라의 춤과 노래를 함께 나누는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가지며 외국에서 지내는 그들의 외로움과 설움도 함께 하고 있단다.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활동으로 아기방 운영이 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고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름답고 건강한 외국인 가정이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운영하고 있

습니다.” 지금은 9명의 아기들을 실무자 3명과 자원 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다고 한다. 유진 신부는 매일 아침 갈릴래아에 가기 전에 아기방부터 들른다고 한다. “아침에 아기들을 만나면 매우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는 유진 신부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기방 부모들에게 존경심을 갖는다고 한다.

이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재원은 어떻게 충당 되는지 물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후원, 갈릴래아 건너편에 있는 원곡성당에서의 후원, 말씀의선교수도회에서의 지원, 다른 성당 신자들의 후원 등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유진 신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고루시아 씨는 “유진 신부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재정 후원과 자원 봉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워낙 신부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 부족한 게 많다”고 어려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갈릴래아의 식구들(왼쪽부터 유진 신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위니 수녀와 노엘 신부 그리고 유일한 실무자 고루시아 씨)



선교 활동을 위해 한국에 온 신부님이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의 벗이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자살과 병고 그리고 산재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들을 누군가 돌봐야 했습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한국말을 배우고 91년부터 서울의 성수동과 자양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생활을 시작한 그는 92년부터 안산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전국 어디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안산, 오산, 수원, 광주, 평택, 성남, 안양 어디서든지 저를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체불이니 산재니 등은 몰랐습니다. 그들을 위해 미사를 준비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문제가 생기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고 등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94,5년부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생겨, 95년부터는 상담 활동도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에 다른 지역에도 상담소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97년에는 마침내 사목센터를 만들고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그들을 누군가 돌봐야 했어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신부가 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궁금했다. “봉사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말씀의선교수도회에 들어가면 선교활동을 해야 하는데 제 동창들 14명 중에 한국말이 어렵다고 아무도 한국을 자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제 서품을 받았던 89년 즈음에 한국이 유명했어요. 경제 성장,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그의 동료들이 한국말이 어려워 포기했다는 대목에 우리말이 그렇게 어렵냐고 되물었다. “정말 어려워요.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 15년이나 살았으면서 그 정도냐고 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진 신부가 우리말에 익숙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어 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선교활동을 후회해 본 적은 없는지 묻자, “한국에서 봉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머물고 싶다”며 오히려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96년에는 아버지의 2002년에는 어머니의 임종을 못 한 것이 못내 가슴 아린 아픔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유진 신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한국인의 배타성에 대해서 넌즈시 물었다. “제가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크게 못 느낍니다. 92,3년에는 상가에 외국인이 왔다갔다 하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잡아가라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외국인 덕분에 장사가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각종 문화 행사를 할 때 안산시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시장이 참여하기도 한다. “작년에는 안산 시장의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을 인정하는 모습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차 묻자, 외국인이라고 느끼면 무조건 반말을 한다며 말을 이었다. “가게나 주유소 그리고 분쟁이 있는 회사에 전화를 걸면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노라 그리고 신부이노라 등등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아, 신부님’ 하면서 정중하게 대하곤 합니다.” 신부인 그가 아직도 이런 대접을 받을진대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을 설움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도처에 널려 있으리라 추측이 돼 못내 안타까웠다.

향후 계획에 대해 묻자, “이제 전세 사무실 공간을 얻을 정도로 많이 자리가 잡혔지만 나중에는 갈릴래아가 독자적인 건물을 가질 정도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국 후에 고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국 땅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



유진 신부의 기타와 노래 솜씨는 일품이라고 한다.

하여 헌신하고 있는 유진 신부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반추해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는 80년대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구어 낸 소중한 결실인 민주주의는 그저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빠르게 심화되어 가는 경제적 불평등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멸시 그리고 억압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다. 우리와 다른 문화적·인종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배타성을 넘어 평화로운 공존의 지혜를 터득하지 않고서는 이 험난한 세계화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이다.

편견과 배타성을 넘어 공존의 지혜를 터득해야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도전이기도 하다. 차이에 대한 편견과 무지로 인해 이를 차별과 억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계기와 창조적 활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열린 마음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된다며 유진 신부의 아름다운 삶은 우리에게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황정옥)